

다양한 쟁론 일으키는 인물비평

성숙된 비판과 평가의 장 마련해야

흔히 우리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석학이 없다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외국의 저명한 지식인은 그 자신이 쓴 논문과 저서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비판서나 관련연구서들로 인해 그 업적이 부각된다. 비판과 평가가 석학을 만든다는 얘기가. 비판이 있는 사회에서, 지식인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이론을 정교하고 탄실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토론문화가 없다. 이것이 지식인을 타락시키고 안주하게 만든다는 안타까움에서 젊은 출판인과 저자들이 다양한 인물비평서 출간을 시도하고 있다.

인물과 사상에 대한 다각도의 조명

최근 쏟아져나오는 인물비평은 평전이나 전기와 다르다. 평전이나 전기 사후에야 이루어지는 평가라면 근래의 인물비평은 동시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석세스 스토리나 정치선전문 저서전과는 물론 맥락이 다르다. 본격적인 인물비평의 물꼬를 튼 것은 강준만교수(전북대 신방과)의 1인 저널리즘 무크지 《인물과 사상》(개마고원). 《김대중 죽이기》로 세인의 관심과 비판을 받은 강교수가 저널리스트라는 새로운 형태로 인물비평에 나섰다. 또 하나의 조류로는 인물비평총서를 기획하고 있는 삼인출판사의 《레드 콤플렉스》와 김주연 교수(숙명여대 독문학과), 이동하 교수(서울시립대 국문학과)가 지식인 사회를 비평한 저서들을 꼽을 수 있다.

《인물과 사상》은 우리 사회가 인물평가에 있어 적당히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태도가 논쟁과 토론을 억누르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에서 발간한 책이다. 사회의 현실문제를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문체로 다룬다. 지난 1월에 펴낸 창간호에서 강교수는 '김대중 집권'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영전략이 지닌 허와 실', 작가 이문열과 장정일, 가수 정태춘, 미국의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와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 미국의 역사학자 다니엘 부어스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했다.

최근에 발간된 제2권에서는 손호철 유시민 조갑제 김우중 이인화 유흥준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강교수는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논리적 모순과 처신 등을 독설에 가

까울 정도로 몰아친다. 그는 서문을 통해 "위선과 기만, 변절을 범한 사람들을 철저히 문책해 공익을 생각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호전적인 자세는 비판의 대상으로 하여금 반론의 장으로 나와 바람직한 논쟁을 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2호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비평은 언론인 조갑제에 대한 '사실 물신주의를 숭배하는 광신도'라는 비판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무시 못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월간조선》의 수구 경향과, 경우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태도, '보이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독단을 펴는 기자의 속성에 대해 날카롭고 직설적으로 파헤친 점이 돋보인다.

《3김을 넘어서》(푸른숲)를 펴낸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의과)에 대해 비판을 가한 부분은 지나치게 원색적이다. "한 영역 안에서 이해갈등(지역갈등)을 벌이는 제 세력 모두에게 형평을 기하자는 내 생각에 손교수는 진보의 이름을 앞세워 역사의 이름으로 무시하자고 한다"고 했고 논쟁을 피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최근 《97 대선 게임의 법칙》(돌베개)을 펴낸 유시민씨에 대해서는 "제3의 후보를 내세워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유씨의 주장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다룬 소설 《인간의 길》(살림)의 저자 이인화씨에 대해서는 '스트롱 콤플렉스' '영웅 콤플렉스'에 휩싸였다고 비판하고, 박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문열·이동하씨를 '대구에서 받은 세뇌교육으로 무장, 국민 일부의 박정희 향수를 시장논리의 음모로 끌어들이다'고 질타했다.

한국사회를 장악한 레드콤플렉스

9명의 언론인·정치평론가·교수들이 함께 쓴 《레드 콤플렉스》는 적색공포증 조장에 앞장선 한국언론과 지식인 사회를 비판한 책이다. '민주총장 박흥의 빨갱이 사냥' '역사에 개인적 보복을 가한 이문열' '김영삼의 좌절과 그 출로' '통일총리 한완상의 예견된 좌절' '김대중을 둘러싼 광기의 정치사' '리영희의 진실을 위한 투쟁' '대백산맥으로 분단의 벽 뛰어넘은 조정래' '세계 속에 통일음악을 꽃피운 윤이상'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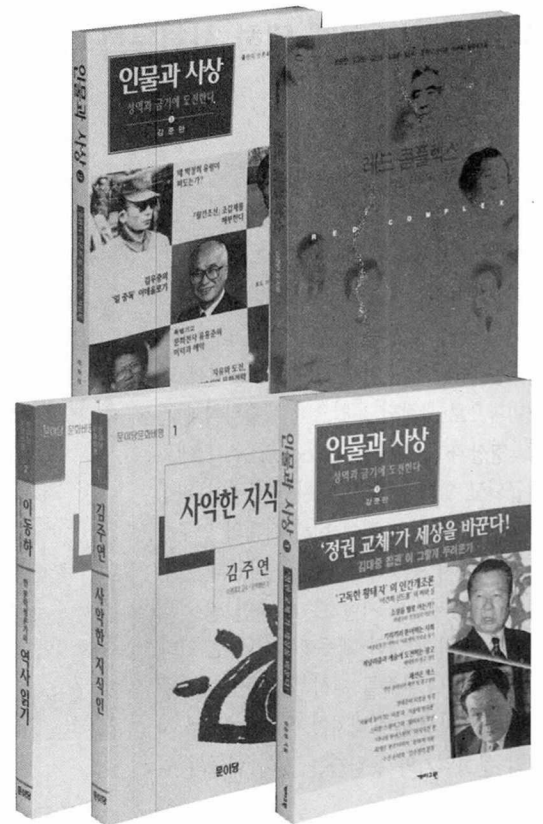
최근 나온 일련의 인물비평서들이 언어 폭력에 의한 비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건전한 토론문화의 장을 열고 공개적인 비판과 평가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지식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전도사 서준식의 삶과 투쟁' 등 지식인들이 앞장서 조장한 레드콤플렉스에 대한 비판과, 이에 희생된 인물들의 아픔과 공과를 담았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전쟁의 '생생한 체험'과 '공포'를 경험한 국민정서를 악용하여 너무나 극단적이고 체제옹호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로 우리 사회를 몰아부쳤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인물중심으로 풀어나간 이 책은 레드콤플렉스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발언하고 활동했는지를 정밀하게 밝혀, 추상적인 이론이나 주장보다 훨씬 더 설득력있게 우리 사회의 레드콤플렉스를 진단한다. 동백림사건에 희생되어 억울하게 수형과 추방의 세월을 보낸 윤이상씨에 대한 이야기는 눈시울을 적신다.

지식인 사회 모순 지적

지식인의 자성이 담긴 김주연 교수와 이동하 교수의 저서는 앞의 책들처럼 인물비평을 주제로 한 책은 아니다. 문학평론가의 문화비평서인 셈인데, 지식인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하고 반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주연 교수의 《사악한 지식인》(문이당)에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현실참여 교수의 이야기와, 모든 정치적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지식인들의 우울감 뒤에 숨겨진 무력함과 왜소함을 비판했다. 정치인들의 지배욕망과 사회에 만연한 관료사상과 비민주적 발상, 범죄집단으로 타락해 버린 지도층



에 대해서도 개탄해마지 않는다.

이동하 교수의 《한 문학평론가의 역사 읽기》(문이당)은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 횡행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서다. 리영희 씨의 역사관에서 드러난 이종성을 검증하는 한편, 박정희의 일당 독재체제.이면에 존재하는 우리 역사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외면하는 지식인들을 비난했다. 이동하 교수의 관점은 강준만 교수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서, 강준만 교수는 '왜 박정희 유령이 떠도는가'라는 글에서 이교수의 글을 위협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기록과 평가, 보상과 문책에 치열하지 못하다. 사회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쉽게 부화뇌동하고 곧 잊어버린다. 자신을 희생하며 공익을 추구한 사람도 쉽게 잊고 위선과 기만과 변절을 범한 사람의 과거도 너무 쉽게 용서한다. 이런 사회분위가 지식인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케 하고 기회주의적 처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

최근에 쏟아지는 일련의 인물비평서들이 언어의 폭력에 의한 비방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토론문화의 장을 열고 공개적인 비판과 평가의 장을 마련해 사상과 사회 분위기를 성숙케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개마고원의 장의덕 사장은 말한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서도 냉철한 논쟁문화가 촉발될 조짐이다.

— 마정미 기자